우선 저에게 제4회 수입박람회의 기업상업전시회 및 식품전시구역의 기본상황을 소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업상업전시회에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이 포함됩니다. 제3회 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방역사업과 전시회 준비사업을 병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시회 면적이 36만 평방미터에 달했고 세계 500대 기업 중 30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신제품과 신기술 및 신서비스 411건이 전시회를 통해 최초로 출시되었습니다. 전시회 개최기간에 달성한 거래의향 체결액이 726.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제4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2021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해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업상업전시회는 박람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이번에도 자동차, 식품 및 농산품, 기술장비, 소비품, 의료기계 및 의약보건, 서비스무역 등 6가지 테마구역으로 나뉘어 전시될 예정입니다. 테마별로 구역을 별도로 설치하고 업종을 세분화한 전시연맹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장비 전시구역에는 집적회로 구역, 공정기계 구역을 설치하고 상응한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소비품 전시구역에는 체육용품과 경기사항 전문구역을 별도로 설치하는 동시에 친환경 지능 가전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전시구역은 그린, 건강, 식품안전을 제창하며 농산품 전문위원회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이미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됐으며 전시품을 상품으로, 전시업체를 투자업체로 성공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4가지 플랫폼은 각각 맡은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고 그 효과가 점차 커져가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시장을 공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신호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내수확대 전략을 촉진하고 쌍순환의 발전 구도를 형성하는데 매우 유리합니다.

식품 및 농산품 전시구역은 3개 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주요하게 음료수와 술 종류, 레저식품, 디저트, 향신료, 유제품, 야채와 농산품, 육류, 수산물, 냉동식품, 유기식품, 식물 기반 식품, 사전포장 식품, 종합식품 등을 전시하게 됩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수입식품 소비국가로 수입식품 소매규모가 1조 위안에 달합니다. 중국은 또한 세계 최대의 농산품 수입국가이자 최대의 육류 소비시장이며 최대의 유제품 신흥시장 및 식품소매시장이기도 합니다.

중국 당중앙은 현재 적극적인 수입촉진 전략과 더불어 무역편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의 부족한 농산품의 수입을 적극 늘리고 다원화적인 수입루트를 개척하자’는 요구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음식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농산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산품의 수입은 이러한 농업자원의 압력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그 시장수요가 매우 거대합니다. 세관총서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에 중국의 식량, 육류 등 농산품의 수입량이 각각 28% 및 60.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소비시장과 중국의 적극적인 수입정책 덕분에 수입박람회 식품전시구역은 기업 참여수가 가장 많고 가장 대표적이며 인기와 관심도가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회 수입박람회를 예로 들면, 백여 개 국가의 수천 개 식품업체가 박람회에 참가했는데 이중 500대 기업이 27개에 달했습니다. 전시회 면적은 74000평방미터에 이르렀으며 기업들은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통해 중국시장을 개척하고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며 신제품을 출시하고 기존 고객 및 새로운 고객들과의 연계를 맺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제3회 수입박람회의 식품전시구역에서만 거래의향 체결액 200억 달러를 달성했으며, 지난 3년간의 복합적인 성장률이 15%에 달했습니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분야는 육가공품, 유제품과 레저식품이었습니다.

총 44개 식품업체가 111가지 신제품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종합식품, 음료수, 주류, 야채, 과일, 농산품 등 품목의 전시회 참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회 수입박람회 개최기간에 한국에서 온 38개 기업이 식품 및 농산품 전시구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풀무원(pulmuone)일 경우 3년 연속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참가했으며 해마다 전시부스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풀무원은 한국 본토지역에 맞게 개발된 콩제품, 스파게티, 김치 등 신제품을 박람회에서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수입박람회는 해외기업이 중국시장을 파악하고 중국시장에 진출하며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아주 효과적인 플랫폼입니다.”

제3회 수입박람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제품은 바로 매운 맛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삼양 불닭면과 친환경 식품인 식물성 고기 햄버거, 신선한 해스 아보카도, 가장 비싼 커피, 가장 비싼 코냑 등 제품이었으며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규홍 오리온 중국 대표이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중국의 개방적인 무역환경과 수입박람회와 같은 교류플랫폼은 해외 기업에 독특한 기회를 선사하고 있으며, 수입박람회 덕분에 더욱 많은 해외 기업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욱 많은 우수한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수입박람회가 업종의 유행추세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이번 제4회 수입박람회에서 식품전시구역의 부지면적은 9만 평방미터에 이르게 되며 1.2, 1.2, 2.2관에 전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시 품목으로는 기존의 종합식품, 육가공품 외에 친환경 건강 유기식품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현재 식품전시구역의 유치사업이 예전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Logo 보드를 보시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선정하여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제4회 수입박람회에서 우리는 유기건강식품 분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유기농 제품 산업에서 이미 빠른 발전을 이룬 상태이며, 중국 역시 이 분야의 시장공간이 매우 거대한 수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유기식품 소비시장은 매년 25%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규모가 600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수입박람회에서 더욱 많은 한국의 유기식품, 친환경 식품, 건강식품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국은 유제품 소비 잠재력이 가장 큰 시장으로 유제품 수입량이 백 억 달러 이상에 달하며 중국의 소비자들은 수입 유제품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전세계 상위 8위권에 드는 유제품 기업 중 6개 기업이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슬레 등 9개 유제품 기업은 유제품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했으며 다수의 유제품 기업을 유치하여 전시회 참가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시부스 면적이 1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유제품 업체가 수입박람회에 적극 참여하여 중국의 유제품 시장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가기를 희망합니다.

박람회 개최기간에 글로벌 유업협력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 관련 부처와 상업협회, 유업기업 등의 전문가가 유제품 수입정책에 관해 자세히 소개하고 업종 현황과 미래 발전추세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유제품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계획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활력을 갖춘 식품, 농산품 시장이며 또한 농산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식량, 과일야채, 육류 등 분야의 11개 선두기업은 1월 20일에 농산품 전문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전문위원회는 산업클러스터의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정부 주관 부처와의 연결은 물론, 각종 전문행사를 조직하고 업종 연구보고를 발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냉동식품 분야에 관해,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방역통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세관 샘플 검사, 분류별 입고, 집중 모니터링 및 통일적인 전시관 진입’의 폐쇄식 관리방안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는 전시장에 출입하는 모든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전시장 환경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예정입니다.

박람회 개최기간에 합리적인 수량에 한해 수입 전시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업체는 세수혜택을 받게 됩니다. 즉 모든 참가 업체는 판매금액이 2만 달러 미만일 경우 세수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정부 부처는 수입박람회의 개최를 지지하는 관련 정책을 출범했으며, 박람회 기간에 지정 인원을 파견하여 전시회 현장에서 정책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박람회 참가팀 40개를 유치하고, 50만개 이상의 국내외 구매업체와 더불어 박람회 기간에 무역상담회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며, 수요에 맞는 매칭을 통해 거래 성사율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친환경, 무공해’를 중점으로 하는 한국 식품기업 풀무원을 예로 들면, 지난 박람회에서 많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풀무원은 “2018년에 수입박람회에 처음 참가해서부터 중국에서의 업무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지역에서의 업무가 3년 연속 100%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언론 홍보 분야를 보면, 수백 여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여개의 언론매체가 수입박람회, 전시업체, 전시상품에 대해 전방위적인 보도를 진행했는데, 특히 한국의 유명 기업인 오리온, 풀무원, 삼양식품 주식회사일 경우 전시회 전후로 중앙텔레비젼 방송국, 중국신문망, 재경망, 텐센트 뉴스 등 주류 홈페이지와 언론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관련 부처와 위원회, 권위가 있는 상공협회 및 전시회연맹 전문위원회는 유제품 대회, 육류대회, 식품안전포럼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람회 참여신청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해외에 등록된 기업 및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은 전부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협회 또는 수입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시 관련 구체 사항은 우리 측에서 별도로 연락을 취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특색이 있는 우수한 업체들이 박람회에 대거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더욱 많은 한국의 식품 기업 및 농산품 기업이 식품전시구역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전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도울 예정이며 수입박람회는 한국의 우수한 식품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좋은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중국의 소비자들에게 가장 전통적인 한국 식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11월에 상해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